

화학제품 1인당 부가가치 0.5% 감소

통계청, 2001년 1억5228만원 ... 코크스·석유정제의 1/3 수준 불과

화학제품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2001년 1억5228만원으로 전년대비 0.5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

2001년 국내 광업·제조업 사업체의 부가가치가 223조8350억원으로 전년대비 1.5%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.

통계청이 산업구조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사자 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<광업·제조업 통계조사> 결과, 광업 부분의 부가가치는 1조1890억원으로 전년대비 1.9% 증가했고, 제조업 부분의 부가가치는 중화학공업이 1.8%, 경공업은 0.3% 증가했다.

중화학공업의 비중은 2000년 보다 0.3%p 높아진 75.1%를 나타냈고, 정보통신산업의 부가가치는 42조2190억원으로 전년대비 10.6% 감소했다.

이에 따라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.5%p 낮아진 19.0%를 보였다.

부가가치는 총 생산액에서 원재료비, 연료·전력·용수비, 외주가공비, 수선비 등 중간투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.

산업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비교

(단위: 1000원)

순위	2000		2001	
	산업별	부가가치	산업별	부가가치
1	·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	486,833	·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	434,547
2	· 화합물 및 화학제품	153,010	·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	157,776
3	·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	143,809	· 화합물 및 화학제품	152,282
4	· 제1차 금속산업	133,953	· 제1차 금속산업	139,044
5	· 전자부품·영상통신장비	133,300	· 자동차 및 트레일러	125,506
6	· 자동차 및 트레일러	100,882	· 전자부품·영상통신장비	119,933
7	· 비금속광물제품	99,537	· 비금속광물제품	108,059
8	· 음식료품	88,596	· 기타 운송장비	89,246
9	·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	86,703	· 음식료품	85,987
10	· 기타 운송장비	85,592	· 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	85,490

2001년 광업·제조업 종사자의 1명당 부가가치는 8391만5000원으로 2000년보다 1.6% 증가했다.

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(24.4%), 가죽·가방 및 신발(20.4%),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(9.7%) 등은 증가했으나,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(-10.7%), 전자부품·영상통신장비(-10.0%), 출판·인쇄 및 기록매체(-6.0%), 조립금속제품(-3.9%) 등은 감소했다.

종사자 1명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도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으로 나타났으며,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 뒤를 이었다.

화학제품은 2001년 1인당 부가가치가 1억5228만원으로 2000년 1억5301만원에 비해 0.5% 감소했는데, 총 부가가치는 21조710억원으로 0.7% 증가했다.